

한솔제지, 2007년 고객 초청 행사 개최



한솔제지는 지난 7월 19일 세종 호텔 세종홀에서 '2007년 고객 초청 행사'를 가졌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전성재 수석연구원의 디지털 인쇄와 인쇄용지에 대한 세미나, 성준모 장항공장장의 설비증설에 따른 제품 품질개선

내용 소개, 서동준 수석연구원의 신제품 설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성재 수석연구원은 "인쇄업계에서 디지털 인쇄에 대한 세미나는 많이 진행됐지만 제지업계에서는 처음이다"면서 "한솔제지는 인쇄업계의 성장 분야인 디지털 인쇄에 맞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 전용지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준모 장항공장장은 "장항공장의 설비 증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용지의 면감을 대폭 개선하고 지합도 15% 향상시키는 한편, 인쇄광택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프리미엄급 아트를 생산하게 됐다"고 했다.

서동준 수석연구원은 "음이온 처리 인쇄용지인 뉴플러스 알파와 음이온 복사지는 요즘 부각되고 있는 웰빙 시대에 맞는 고품격 인쇄용지이고 신제품인 양코르는 친환경 고급인쇄용지이다"고 밝혔다.

이날 한솔제지가 공개한 양코르는 재생원료를 55% 사용하고 생산과정에서 염소계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인증기준을 통과,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다. 한솔제지는 이 제품이 단순히 친환경성을 앞세운 재생지가 아니라 고급인쇄용지와 대등한 수준의 인쇄성과 질감을 가지고 있어 기업 사보, 화보집, 고급캘린더 등 제작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 직원, 인쇄사 현장 체험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 직원 70여 명이 최근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소재의 인쇄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인쇄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품질환경부 백남진 차장의 인솔

아래 참가자들은 사진 및 도해를 통해 인쇄기를 이해하고 인쇄사 기장의 인쇄기 설명을 들었다.

한국제지, 무광택 미도공지 하이퍼 수이 리플렛 제작

한국제지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고급인쇄용지 '하이퍼 수이' 리플렛을 제작, 배포에 돌입했다.

수이 리플렛은 한국제지에서 생산하는 고급 인쇄용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폴더에 낱장형식으로 레터사이즈 종이 샘플을 넣어 인쇄품질과 종이의 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지는 전통건축 지붕의 단청과 누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고급지에 대한 새로운 고객 요구로 탄생한 '하이퍼 수이' 리플렛은 전국 대리점, 기획사, 출판사, 인쇄사, 출판사 등에 배포된다.

삼원페이퍼갤러리, 일러스트 작가 4인 초대전 개최



삼원페이퍼갤러리는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일러스트학회 후원으로 '일러스트 작가 4인 초대전'을 개최한다.

김공웅, 장완영, 이봉섭, 고현 등 4인의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초대전은 비도공 종이에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일러스트 효과를 맘껏 발휘하고 있다. 질감이 살아 있는 차분한 느낌의 종이 위에 단순하고 절제된 선이 모인 일러스트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초대전에서는 일러스트 작가 4인의 작품집을 직접 제작해 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Do It Yourself'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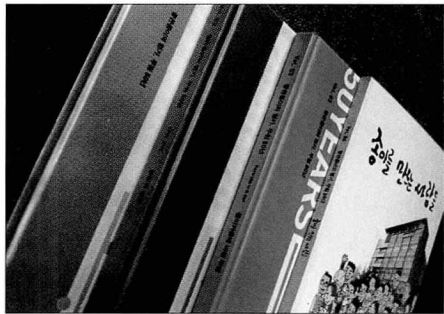
한국제지, 복사용지 하이퍼CC 경품행사 진행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국산 고급 복사용지 하이퍼CC 제품군의 출시를 기념, 7월 31일까지 '복사용지 하이퍼CC를 쓰면 노트북과 닌텐도 DS가 내 손에!'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하이퍼CC 브랜드 사이트(hipercoc.com)의 <CC체험후기> 이벤트 게시판에 국산 고급 복사용지 하이퍼CC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폭을 대폭 넓혀 구매 고객 뿐 아니라 하이퍼CC를 사용자에게도 글을 쓰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사무용품 온라인 쇼핑몰인

알파몰, 링크, 모든오피스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도 응모를 받았다. 우수작에는 노트북, 닌텐도 DS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됐으며, 홈페이지에 작품이 공개된다. 한국제지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품행사를 통해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산 고급복사용지 하이퍼CC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무림페이퍼 · 무림SP, 50주년 사사 발간



무림(무림페이퍼 · 무림SP)은 올 7월 창립 51주년을 맞아 50주년 사사를 발간했다. 무림 50년 사사는 1책 4권의 분권형으로 1권은 최근 10년사, 2권은 40년사 요약본, 3권은 화보집 '종이거울에 비친 무림', 4권은 '종이 만드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무림 사사는 특히 만화본으로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만화본 사사는 국내 기업 최초의 시도로 사내직원 뿐 아니라 일반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단행본 사이즈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읽을 수 있는 등 활용성이 뛰어나다. 또한 중견 만화작가인 이희재 화백이 참여, 단순한 흥미와 재미 위주의 만화를 넘어 무림의 50년 역사와 정신을 쉽게 잘 드러내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만화 사사를 통해 젊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역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무림 50년사가 장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읽히는 역사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림 사사는 제지회사답게 주력 생산지종 11종을 써서 샘플북 기능도 겸하고 있으며, 일반 인쇄 뿐 아니라 금박, 형압, 실�크코팅 등 다양한 책 제작 방법을 총 동원하여 출판 디자인업계 관계자들에게 책 제작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사 제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림은 50년 사사를 고객 및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 환경미화 실시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은 최근 임직원 30여 명이 참가하여 공장내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장 정문에서 후문까지 2개조로 나누어 약 2시간에 걸쳐 환경미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총 50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추후 실시할 환경미화 작업은 공장 외벽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화제지, 또하나의 빛 전시회



삼화제지(대표 김연호)는 지난 7월 2일부터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또 하나의 빛-스타라이트 특집전'을 개최했다.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삼화제지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펄, 메탈지인 '스타라이트' 위에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종이 자체만으로도 디자인된 듯 한 독특한 펄과 메탈릭 컬러와 느낌을 살린 쇼핑백, 봉투, 북커버, 카드, 캘린더, 브로슈어, 패키지 등 다양한 제작물이 전시되는 등 디자이너의 끝없는 상상과 표현력을 살린 풍부한 작품들이 선보였다.